

# 보성, 2019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지급

### 1만3천927농가 1만5천198ha대상, 총 125억원 농가 소득 보전 및 안정적인 농업경영 지원 위해

보성군은 최근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25억원을 1만3천927농가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올해 지급된 쌀 고정직불금은 6천777농가에 92억6천만원, 밭 직불금은 6천657농가에 31억2천만원, 조건불리직불금은 493농가 1억4천만원으로 총 125억원 가량이다.

지급단가는 쌀 고정직불금이 ha당 진흥지역 107만 6천416원, 비 진흥지역은 80만 7천312원, 밭 직불금은 ha당 진흥지역 70만 2천938원, 비진흥지역 52만 7천

204원, 논 이모작은 50만원, 조건불리 직불금은 ha당 논지 65만원, 초지 40만원이다. 쌀 고정직불금의 지급단가는 전년과 동일하나, 밭 직불금과 조건불리 직불금은 전년대비 ha당 5만원이 인상됐다.

김철우 보성군수는 "특히, 가을장마와 연이은 태풍 등 자연재해로 농가들이 많은 어려움을 겪었던 한해 였던 만큼 직불금 지급으로 농가들의 소득보장은 물론 농업 경영 안정에 큰 보탬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직불금 지원대상 농지는 쌀 고정 직불금은 1998년~2000년까지 논농업에 이용된 농지이며, 밭 직불금은 2012



보성군은 최근 농가 소득을 보전하고 안정적인 농업경영을 지원하기 위해 2019년도 쌀·밭·조건불리직불금 125억원을 1만3천927농가에 지급 완료했다고 밝혔다. /보성군 제공

년~2014년까지 밭농업에 이용된 논지, 조에 이용된 농지이다. /보성=김용욱 기자 ywkim@

## 장흥군·부천시 '안중근으로 의기투합'

### 부천시 우수정책·시책 발굴 벤치마킹팀 장흥군 방문

최근 경기도 부천시 우수정책·시책 발굴 벤치마킹팀이 1박 2일 일정으로 장흥군을 방문했다.

이번 벤치마킹에는 장덕현 부천시장과 간부공무원 30여명이 참석했다. 방문단은 장흥군청 회의실에서 상호 우의를 다지는 환영행사와 친교의 시간을 가진 후 장흥편백수 우드랜드와 억불산, 동양 3대 보림 중 하나인 보림사를 방문했다.

이어 국내에서 유일하게 안중근 의사의 위패와 영정을 모신 사당인 해동사를 참배했다.

부천시는 1995년도에 중국 하얼빈시와 자매결연을 해 2009년 하얼빈에서 반입된 안중근 의사의 동상이 설치된 안중근 공원이 있는 곳이다.

'안중근 의사 문화관광자원화 사



업'을 추진하고 있는 장흥군과도 역사적 공통점이 있는 것이다.

정중순 장흥군수는 "장흥군과 부천시가 대한민국 독립운동의 상징인 안중근 의사를 중심으로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관계를 구축하길 바란다"며, "이번 만남을 통해 실무 교류를 확대하고 관계가 발전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장흥=김정근 기자 kimjg@

### 진도,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무·신동진 선정

진도군이 2020년산 공공비축미곡 매입 품종 선정 협의회를 개최해 매입 품종을 선정무와 신동진으로 결정했다.

올해 링링, 타파, 미탁 3번의 연속된 태풍과 많은 비, 일조 저하 등으로 벼 수확이 감소했고, 농업인이 의향조사와 심의 결과 재해에 강한 선정무 품종을 선정했다.

군은 선정무 품종은 보급종이 아니지만 사전에 자기확보와 농가간 자율교환 등을 통해 선정된 우량종자 확보와 도복, 수발아, 벼멸구 피해 발생 등에서 재충한 종자는 사용을 자제 해줄 것을 당부했다.

군 농업지원과 관계자는 "각종 재해가 대형화되고 예측하기 어려워지는 농업생산 환경에서 농업인들의 소득 향상에 기여하면서 진도군을 대표 할 수 있는 고품질 쌀을 적극 육성할 계획이다"고 말했다.

올해 2019년산 공공비축미 매입은 오는 11월 12일 진도읍을 시작으로 11월 27일까지 3천829톤(9만5천734가마)을 매입할 계획이며, 피해배를 11월까지 600Kg과 30Kg 규격으로 전량(유색미·가공미 제외) 매입한다.

한편 작년부터 품종검정제도 도입돼 매입대상 농가 중 5% 농가의 시료를 채취해 DNA 검사 후 타품종이 20% 이상 혼입 시 해당 농가는 5년간 공공비축미곡 매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진도=이현일 기자 leehi7777@

## 완도 장보고 아카데미, 한·중·일 대학생 참여

완도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소장 추교훈)와 동서대 CAMPUS ASIA 사업단(단장 이원범)은 최근 장보고 선양사업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번 협약에 따라 동서대 CAMPUS ASIA 한·중·일 학생들은 매년 60명 이상 장보고리더십 아카데미에 참여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장보고대사에 대한 학술교류 및 인적교류 등 지식 자원을 공유하게 된다.

동서대 CAMPUS ASIA 사업단은 2010년 제주도에서 열린 3국 정상회담에서 채택한 3국간 교육협력 사업을 기반으로 사업단원이 발족했다.

CAMPUS ASIA는 동아시아 차세대 인문학 리더 양성을 목표로 한·중·일 3국 학생이 3개 국가에서 1년씩 돌아가면서 지내며, 서로의 역사, 문화, 사회 전반에 대해 수업이 진행된다.

CAMPUS ASIA 사업단에는 한국 동서대학교, 중국 광둥외어외무대학 일본 리쓰메이칸대학 3개 학교가 참여하고 있다.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는 장보고대사의 유산인 국가 지정 문화재 사적 308호 완도 청해진 유적과 장보고기념관을 관리 및



완도군 장보고유적관리사업소와 동서대 CAMPUS ASIA 사업단은 최근 장보고 선양사업과 상호교류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완도군 제공

### 완도군-동서대학교, 장보고 선양 사업 업무협약 체결

운영하고 있으며, 기획 전시, 관련 자료 제작·배포 등 장보고 대사 알리기에 노력하고 있다.

특히, 지난 2014년에는 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를 개설해 해경, 해군 장병, 초·중·고등학교 등 매년 3천여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교육 대상자들에게 큰 호응을 얻고 있다.

추교훈 소장은 "장보고 대사는 통일신라시기 한·중·일 3국을 넘어 페르시아까지 활동하며 도전정신과 해양개척정신을

일깨워 줄 수 있는 3국 역사 모두에 등장하는 인물이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3국 대학생들이 장보고 대사에 대해 토론하며 서로 화합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완도군은 장보고 대사 선양사업을 위해 장보고 리더십 아카데미 뿐만 아니라 장보고 한상 어워드 제정, 법화사지 발굴, 학술회의 개최 등 다양한 사업을 통해 장보고 대사 업적 알리기에 앞장서고 있다.

/완도=박나영 기자 ny4040ny@

## 해남, 합계출산율 7년 연속 1위 유도차 행진

7년연속합계출산율 전국 1위를 차지한 해남군은 지난 9일 지역주민들과 함께하는 아이사랑 유도차 축제를 열었다.

올해로 5회째를 맞는 축제는 합계출산율 1위 달성을 축하하고, 지역내 출산친화 분위기를 위해 매년 개최되고 있다.

기념식에서는 해남 복지어린이집과 대은정무용단의 어린이들이 동생 탄생을 축하하는 공연을 선보인 가운데 늦동이 가족, 다자녀 가족 등에게 '우리가족 최고상'이 수여됐다.

특히 기념식 후에는 임신부와 영유아의 유도차와 함께 학생, 청년, 귀농귀촌인, 어르신 실버카 등 지역주민 1천여명이 해남읍 시가행진을 갖고 '요람에서 노년까지

행복한 해남'을 축하하는 자리를 가졌다.

행진 코스 곳곳에는 지역예술인의 색소폰, 통타 연주와 해남동초등학교 관현악단 연주 등이 펼쳐져 지역 주민들과 공감대를 같이하기도 했다.

해남군은 2018년 합계출산율 1.89명(전국평균 0.97명)으로 7년 연속 전국 지자체 1위를 차지했다. 군은 출산 성과를 이어 오는 2021년까지 영유아 보육과 가족지원의 포괄적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땅끝가족어울림센터 건립을 추진하는 한편 청소년 복합문화센터 및 작은영화관을 내년부터 신축하는 등 출산과 양육, 교육 기반 조성에도 적극 나서고 있다.

/해남=김대수 기자 abc6789@

## 고흥, 전복 종자 6만7천미 염포지선에 방류

고흥군(군수 송귀근)은 최근 지역 주민, 어업인, 공무원 및 유관 단체 등 50여 명이 함께한 가운데 어족자원 조성과 어가소득 증대를 위해 고소득 품종인 전복 종자 6만7천미를 고흥군 봉래면 염포지선에 방류했다고 밝혔다.

수산 종자 방류사업은 조업어장의 축소와 불법어업으로 인한 남획, 해양환경 변화(고수온, 온난화 등)로 낚이 갈수록 고갈돼 가고 있는 어족자원을 보존하고 바

다 생태계에 활력을 불어 넣기 위해서다.

군은 올해 방류사업에 3억원의 예산을 투자해 지난 6월 전남 7만미 방류를 시작으로 7월 감성돔 37만미, 대하 752만미, 돌돔 3만미, 이상 4종 799만미를 방류했으며, 이번 행사에서 전복을 마지막으로 방류하게 됐다. 앞으로도 해역에 적합한 수산종묘 방류를 위해 2020년도 방류사업비로 국비를 확보해 추진 할 계획이다. /고흥=윤규진 기자 jin2001@

**아시아에너지경제**

새롭게 도약하는  
아시아에너지경제가  
능력있는  
지역·사군 기사를 모집합니다.

문의전화 : 02)868-4190, 010-9192-8048  
팩스 : 02)868-4290, 062)227-0084  
주소: 서울특별시 서초구 서운로 18(서초동) 영진빌딩 6층  
광주지사: 광주광역시 북구 금남로 75(유동33-4)소석빌딩 5층